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2년 7월 1일 제23호

SBS사우회보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임형두 편집인 박동주 주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5호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sau@hanmail.net

SBS 사우회 하나가 되다

활기 띠는 협찬기금 조성

사우회가 미래의 안정적 재정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 협찬기금 조성 캠페인이 사우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올 1월 사우회운영위원들의 첫 참여로 시작된 특별협찬금 조성은 사우회 고문을 비롯해 전 현직 임원진들과 본사 우원길 SBS 사장이 동참하는 등 6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40여명의 사우들이 뜻을 함께해 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의 굿은 일 등 애경사를 치른후 감사의 뜻으로 기부하는 사우들의 참여율이 높아 협찬금 조성에 큰 탄력이 붙고 있다.

사우회 임형두 회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무엇보다도 사우

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의미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동참한 모든 사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우회는 협찬금 조성 캠페인에 대한 사우들의 호응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BS 사우회가 금년도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 협찬금 조성 캠페인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SBS 사우회가 한단계 더 성장하고 430명 사우들의 하나된 응집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협찬금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우는 다음과 같다.

(접수순)
윤혁기(20만원) 임형두(100만원)

우원길(200만원) 임영규(10만원)
엄효섭(10만원) 이재명(10만원)
손석기(10만원) 정승화(30만원)
황효선(10만원) 이시권(20만원)
차성모(10만원) 송도균(20만원)
곽영범(10만원) 유용우(10만원)
박 충(10만원) 박오중(10만원)
최겸수(30만원) 박동주(10만원)
박찬근(20만원) 이종수(10만원)
이영혜(10만원) 변순복(10만원)
엄광석(10만원) 박건삼(10만원)
김세웅(10만원) 서상정(10만원)
강영권(20만원)

(경조사 답례 협찬금)
이진용(50만원) 김홍덕(30만원)
임형두(50만원) 김문중(20만원)
박오중(30만원) 이관형(30만원)
권오형(30만원)



봄날의 소풍, 백제의 꿈을 찾다

야유회 부여 나들이 만끽

SBS 사우회는 봄철 야유회를 5월 24일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 가졌다. 예년과 달리 서울 근교가 아닌 먼 여정에도 불구하고 46명의 사우들이 참가해 백제문화단지를 돌아 보며 싱그러운 5월의 봄날을 만끽했다.

충남 부여 규암면 합정리에 자리한 백제 문화단지는 삼국시대 백제왕궁인 사비궁, 위례성, 백제인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등 찬란했던 백제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있게 조성해 놓아 부여 관광권에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TV 사극 근초고왕과 계백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2시간에 걸쳐 관람을 마친 사우들은 사비궁 정양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즐겼다. 임형두 회장은 사우회 야유회는 사우들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자리라며 사우들의 우정과 건강을 담은 잔을 높이 들어 건배제를 했다. 사우들은 귀경 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완공된 금강 백제보에 들러 관계자로 부터

용수확보와 홍수예방 등 물 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계백장군의 갑옷과 안장을 형상화한 백제보 공도교를 거닐면서 유유히 흐르는 금강에 피로를 씻었다.

한편 올 야유회는 많은 사우들이 부인을 동반해 남다른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사우들은 사우회가 마련한 기념품을 받고 내년 야유회를 기억하며 어느 봄날 소풍 가는 길의 추억을 뒤로했다.

(5월 야유회 이모저모 화보 2면)

‘국회서 진행 하겠습니다’

홍지만 사우 앵커맨에서 국회의원



홍지만 사우

홍지만 사우가 4년전 패배를 설욕하고 19대 국회에 진출했다. 4.11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홍사우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전달하기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눈물이 흐르지 않

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사우가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맹형규, 전용학 사우에 이어 SBS 앵커맨 출신 국회의원 계보를 잇게 되었다. 한편 19대 총선서 재선과 초선에 도전한 다른 3명의 사우들은 접전끝에 패배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다.

사우회보 편집위원 새로 위촉

사우회는 SBS 사우회보 편집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최겸수, 이시권사우의 뒤를 이어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은 박 충, 이종수 사우 2명이며 기존 엄효섭, 황효선 사우

는 계속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한편 사우회는 박희재 사우를 SBS 사우회 홈페이지 관리자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상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은 SBS

감동과 투혼의 승리를 보여주마!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해 역도에서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땀던 영국 런던에서 64년만에 다시 2012 올림픽이 열린다.

SBS는 ‘하나의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17일간 펼쳐지는 지구촌 스포츠제전 올림픽의 감동과 투혼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런던 IBC내에 170평 규모의 방송센터를 마련 하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SBS 올림픽 방송단은 아나운서, 기자, 엔지니어를 비롯해 차범근, 장재근, 노민상 등 20명의 각 종목 배태량 해설위원 20명을 포함, 120여명에 이른다. 올림픽 기간동안 주요경기는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매일 낮 12시30분 부터 런던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편성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올림픽 채널 SBS 위상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런던 올림픽 기간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런던 올림픽 이색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2층 런던버스를 운행하며 게릴라 콘서트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POWER FM, 파워를 발휘하다

SBS 라디오 107.7MHz 파워 FM이 라디오 전체 청취율 1위를 달성했다.

파워 FM은 지난 5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20년동안 청취율 선두를 지켜온 MBC 표준 FM의 아성을 깨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6년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두시탈출 컬투쇼>가 청취율 1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협찬금 내신분 ◆ 협찬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954097 ◆

김문중(20만원), 김홍덕(30만원), 이진용(50만원), 임형두(50만원), 박오중(30만원)

야유회 영상 '나 어디있어?'



◆건강 & 취미

왜 나는 자전거를 타는가?



오 창근 사우

어린 시절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쯤 되던 어느 날로 기억된다. 우리 동네 자전거라곤 옆집 아저씨택의 짐승은 자전거가 유일했다. 하도 자전거가 타고 싶어 몰래 훔쳐타고 달리다 넘어져 자전거 패달을 부러트리기도 말았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나는 아버지로부터 혼쫓아났다.

그날 이후 유년시절 기억저편에 묻어 둔 자전거를 40년만에 다시 꺼내 원없이 타고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바야흐로 자전거 천국이 되었다. 전국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여져 있고 마음만 먹으면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정년 퇴직한 이후로 나는 오토바이 동호회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전국을 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자전거에 더 매력을 느낀다. 헬멧을 쓰고 간단하게 자전거 복장을 하고 그냥 100km씩 아님 200km씩 달린다. 어느 코스를 달릴지 목적지

를 미리 정해 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집을 나서면서 그 때 맘 내키는 대로, 몸이 달리는 대로 자유롭게 달린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쾌한 자유를 만끽하는데 이만한 스포츠가 없다.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딱 두가지만 들겠다. 말할것도 없이 우선 건강에 최고다. 나이들면서 약해지는 무릎 강화에 도움을 주고 심폐 기능이 강해 진다. 여자들은 요실금 치료와 예방에도 좋고, 남자들은 정력이 강해 진다.



두번 째로 자전거를 타면 인생을 배운다는 점이다.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오르막 길이 길면 내리막 길도 길다는 평범한 진리다. 물론 오르막 길을 오를 땀 흘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내리막 길을 만나게 마련이다. 맞 바람을 맞으며 내리막 길을 질주하며 내려올 때 그 짜릿하고 상쾌한 맛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스릴과 감동을 느낀

다. 나는 서울에서 부산 태종대까지 왕복도 해보았고 5년 전, 암 투병중인 치과의사 친구와 대마도 자전거 투어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6년 전의 제주 서울 왕복 자전거 여행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떠 오른다. 퇴직후 내 삶의 8할은 '자전거 바람'이었다.

왜 자전거를 타느냐?고 묻는다면 바람을 가르고 달리는 상쾌한 기분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이 기분은 자전거를 아니 타본 사람을 모르니까 어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자전거를 타보라! 그러면 느낄 것이다. 자전거가 주는 스릴과 재미와 덤으로 얻는 건강과 아름다운 감동을!

끝으로 내가 자주 애용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서울 인근(50~100km안팎)의 멋지고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를 소개해 볼까 한다. 춘천 가는 길, 강촌 못미쳐 당림 오솔길 32km, 흥천의 솔치재 32km, 강원도 함백산에서 에이역으로 이어지는 72km 오솔길, 이 세 코스는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오솔길이 있구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 천상으로 가는 길을 느낄 수 있다.

사우회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라! 건강을 지키고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있음을 배울 것이다.



매캐한 모기향 피워놓은 거실에서 영감과 할망구는 연신 부채질을 한다. 에어컨은 전기로 조바심 때문에 꺼져 못한체 할망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영감은 아메리카노 아이스커피를 마신다. 성이 안찬 영감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어린시절 고향집 텃 마당을 떠 올렸다. 명석에 둘러 앉은 가족들은 마른 썩에 불을 피워 모기를 쫓으며 우물속에서 꺼낸 수박 한덩이 잘라 아삭아삭 퍽퍽 퍽퍽 씨 뱉어 가며 먹은 뒤 엄마가 뿌려주는 샘물 등목에 아~ 차가워 아~ 시원해 즐거운 엄살 지르던 한 여름 밤의 동화가 그리워서...

성하의 계절이다. 우리 몸이 열받으면 몸속은 차가워 진다고 한다. 예로부터 복날에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가보다.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데우면 더위를 이기는 힘이 생겨 더위를 피하지 않고 맛 붙어 싸웠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의 더위를 이기는 지혜, 그냥 얻은 게 아니다. 자연의 기운에 따라 신체리듬이 달라지기에 이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리에서 터득한 것이다. 사우님 우리 사우님 지난 5월의 야유회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가웠나이다. 여름 잘 다스려 더 건강하옵소서 혹 삼계탕 생각나시면 사우회에 들리세요 여의도에 유명한 곳이 있으니...

- 편집자註 -

회비안내 (중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20,000원 중신회비 : 200,000원

회비납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901-277104

SBS社友漫評



휴가=재충전 WORK SMART 즐기는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긴다.

사우 TALK

오래만에 부여에서 집 사람과 데이트를 즐긴 하루였습니다. 야유회에 마누라 데리고 왔다고 야유하지 마세요, 모처럼 집 사람을 삼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 봄철 야유회 아내를 대동한 신병식 사우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떨어졌다는 것은 계산기 없을 때 통계이고 정확한 수는 2천998명입니다. 덜 떨어진 궁녀, 안 떨어진 궁녀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두 궁녀의 후손일수도 있습니다.

- 야유회 낙화암 못가는 아쉬움에 손석기 사우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 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자리에서 나누어 봅시다. 지갑을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우정을 나누세요! 우정은 나누면 두터워집니다.

- 미래위원회 회식 자리 건배사에 김벽수 사우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강아지들, 짐으로 엮은 계란 꾸러미, 가위질 요란한 옛장수, 이런 저런 양평 장날의 풍경을 보며 장터에서 막걸리 한사발에 국밥 한 그릇 비우고 용문산에 올랐더니 세상에 부러운 게 없더라.

- 요산요수회 양평장날 번개팅에서 박건삼 사우

흔레 치루기 좋은 계절인 모양입니다, 오뉴월 내내 결혼식장에 간 건지 사우회 모임에 간 건지 헷갈렸습니다. 주말마다 사우들을 만나 정담을 나누며 가볍게 소주 한잔 곁들이는 맛, 이 자리 마련 해주신 훈주께 감사드립니다.

- 결혼식장에서 만난 사우들과 담소를 나누며 윤총의 사우

연습과 실전은 다르네요, 평소실력들 어디로 도망가고 쓰리쿠션 끝내기 그렇게 어려운가? 100당구 앞에 300당구 무너지는 것 보니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 성적이 실력순이 아닌 것 같네요.

- 사우회장배 당구대회 관전기 김재백 사우

동호회 FOCUS

| 음악감상동호회

이색 음악 경로잔치(?)



5월19일 일산 강동하 사우 전원 주택에서 SBS 현역 후배를 초청해 특별 야외 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초

청태 아름다운 연주를 한 후배들은 박성태(SBS 아이브팀 색소폰 블루), 김영창(SBS 뉴스틱 하모니카), 김택영(남산 송신소 색소폰), 정환식(SBS 플러스 클라리넷), 류상우(SBS 외주제작팀 트럼펫) 5명으로 프로 뺨치는 실력을 보여줘 경로잔치(?)에 참석한 선배들의 갈채를 받았다.

5명의 후배들은 생애 첫 초청을 받아 선배들 앞에서 연주한 자리가 너무 뜻 깊었다고 말했다.

| 골프동호회

5월15일 이전 더반 CC에서 가진 2차 라운딩에 이어 6월19일 3차 라운딩을 끝으로 상반기활동을 마치고 폭서기가 끝난 9월에 다시 재개한다.

| 당구동호회

SBS사우회장배 당구대회



6월13일 여의도 백화점 빌리어드 당구장에서 사우회장배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20여명의 사우들이 참

가해 열전을 벌인 끝에 박찬근사우가 우승을, 김근수사우가 준우승을 차지 했고 장려상은 박영호사우가 받았다.

| 요산요수회

4월22일 남산 벚꽃길 걷기에 이어 6월18일 양평장날 장터풍경을 즐기고 용문사를 돌아보았다.

| 바둑동호회

6월16일 본사 기우회 초청 춘계합동바둑대회 참가했다.

| 문화예술동호회

4월18일 성남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모짜르트」를 관람했다.

◆Story 주인공



이 시 권 사우

드라마 “모래시계”는 방송되지 못할 뻔 했다

나는 참, 어리석은 자(者)였다. 그 훌륭하고 멋진 드라마 “모래시계”를 방송 불가(不可)로 판정했었으니까...

1991년 초, SBS가 개국을 위해 사람을 찾고 있을 당시 나는, MBC 편성기획부에서 외주제작 담당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외주 제작이 지금처럼 방송사가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때였다. 짐작컨대 MBC, KBS 통틀어 외주 제작을 직접 발주했던 유일한 담당자이므로 그 노하우를 가진 내가 스카웃 대상이 된 것으로 짐작했다.

그 해 12월 9일 TV 개국 당시, 정부가 제시한 외주제작 의무비율이 3%임에도 SBS는 외주비율을 9%까지 확대하였고, 제작인력

을 총원하는 대신 외주제작을 강화하는 경영정책을 썼다. 지금은 ‘외주제작팀’이라는 부서명이 방송사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때 내가 맡은 부서는 ‘편성관리부’였고 부장으로서 10여개의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정부의 강제 편성방침에 발맞춰 그렇게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으며 1992년에는 ‘SBS프로덕션’이 설립되어 외부제작물을 본사에 공급하게 되었다. 1994년 가을쯤, 한편의 드라마 기획안을 접수하여 기획의도와 시놉시스를 검토하게 되었다. 작품명 “이연(異然)”이라고 표지에 쓰여 있었다. 작가는 송지나, 연출은 김종학이었다.

1992년 2월에 끝난 공전(空前)의 히트작 ‘여명의 눈동자’ (MBC)와 극본 및 연출이 같았으니 누가 봐도 구미가 당기는 기획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광수 이사로부터 SBS프로덕션이

제출한 드라마 “이연”의 기획안 검토 지시를 받은 내 결론은 그럼에도 ‘방송불가’였다.

방송된 드라마를 다 본 다음에야 “아니, 그런 좋은 작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말이나”고 내게 편지를 쥐도 할 말은 없지만,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드라마가 나올 당시는 ‘광주사태’로 불렸고 1997년에야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던 역사적 상황을 감안해 주기 바람) 게다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드라마에서 다룬다는데 선뜻 구매하겠다고 나설 자신이 없었다.

김광수 이사께 보고를 했다. “제가 보기엔 골치 아픈 작품인 것 같습니다.”

편성이 어려울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신설 민영방송으로서 방송 후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 걱정이 됩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여...

다행히 김 이사께서도 같은 생각이라며 SBS프로덕션에 우리의 생각을 알렸다.

그러나 방송은 결정 되었고 애초 ‘이연(異然)’이었던 제목이 ‘모래시계’로 변경되어 ‘귀가시계’의 별명까지 얻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드라마 ‘모래시계’는 SBS의 저력을 단숨에 알아보게 하는 후폭풍을 일으키게 했다. (‘후폭풍’의 종류가 다를 뿐, 필자가 예측한 상황도 후폭풍이었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이지만...)

뒷얘기를 빠뜨릴 수 없어서 말인데, ‘모래시계’가 방송된 시연에는 당시 SBS프로덕션의 신영균 회장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글썄, 의심하는건 아니지만 신영균 회장께서는 정말 드라마의 후폭풍(?)을 예견하여 편성토록 요구하신 것이지 수주를 성사시켜 매출을 올리려 밀어 붙이신건 아니시겠지요? 어느 날, 나는, 편집



실로 김종학 감독을 찾아갔다. 방송이 시작되기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것이다. 내 부끄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고백하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역사가 나 같은 심약자(?)로 인해 뒤바뀌진 않았을 테고, 결국엔 방송은 되었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했다.

“큰 일 날 뻔 했다. 이런 최고의 드라마를 안 된다고 했을 때 마음 상했다면 풀어달라”고

통큰 김종학 감독의 대답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그런 일이 있었수?...”

- 이시권사우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 | 조 | 사 | 항

부 음

김근수 모친상(3월31일)
김인용 빙모상(5월4일)
이진용 모친상(6월11일)

결 혼

김홍덕 장남(4월14일) 김문중 차남(6월3일)
박희재 장녀(4월28일) 박오중 장녀(6월3일)
이수영 사우(5월12일) 엄경섭 장녀(6월16일)
임형두 차녀(5월12일)

회 | 비 | 내 | 신 | 분

연회비(4~6월)

김 기, 김국은, 김도영, 김중현, 김혁태, 문계창, 박연태, 박세호, 박지용, 서강덕, 이두표, 이수용, 이현호, 임경수, 임상길, 조용호, 주일청

종신회비(각20만원)

김영식, 김한중, 신동훈, 서인준, 이명규, 임형식, 조희수, 홍성철, 황호형

◆ON AIR | 나의 비망록

넥타이 매고 LPGA 취재



방송통신심의위원
엄 광 석 사우

1998년은 우리 국민들이 두고 두고 기억하고싶지 않은 해일 것이다. IMF가 터진 해였기 때문. 회사도 그랬다. 감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장을 잃은 동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해 1월 나는 뉴욕특파원 발령을 받았다. 후자는 어려운 때 외국으로 떠나니 좋을 거라고도 했지만 솔직히 마음은 무거웠다.

어쨌거나 특파원부임 녀 달째 인가 싶은데 보도국에서 박세리라는 골프선수가 맥도널드 챔피언십에 출전하는데 취재해보는

게 어떠한 제인이 왔다. 평소 스포츠에는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또 취재해본 적도 없는 터라 떨떠름했던게 사실이었다. 더구나 뉴욕특파원 하면 폼나는(?) 국제 정치나 경제기사에 치중하는 것이 본령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레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필라델피아로 향했다. 넥타이 까지 매고.(나중에 미주신문에 난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데 이게 웬일? 덜컥 박세리가 우승을 하는게 아닌가. 나도 놀라고 국민도 놀랐을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국민들이 절망에 짓어있던 시절. 박세리의 통쾌한 세계재패소식은 한줄기 희망으로 변했다. 그 뒤 요술공주는 가는 곳마다 우승을 차지했고 국민들은 뜬눈으로 새벽에 날아오는 낭보를 접했다. 그런데 일이 묘하게도 박세리가 우승을

놓칠 뻔 펄신이나 김미현이 우승을 차지해 취재때마다 대박이 터지는 기분이었다. 덕분에 미국의 전역 안 가 본 곳이 없고 유명세와 함께 팔자에도 없는 스포츠전문가까지 되었다.

취재는 보람차고 성과 있는 것이었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 경기 후 위성으로 리포트를 쏘아야 하는데 남쪽시골로 내려갈수록 위성을 쏘는 방송국을 찾기 어려워 어떤 때는 야간에 경비행기를 타고 한시간 가까이 날아간 적도 있었다.

자정 가까운 시간, 악어가 우글대는 플로리다의 늪지대 위를 경비행기로 날고 있다는 기분을 상상해 보시라.

어쨌거나 즐거운 추억이고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뛰고 싶지만 오호라! 몸은 늙고 이제는 후배들의 멋진 취재기나 접해야할 것 같다.

사 | 우 | 동 | 정



문정수 사우는 사무실을 상암동에 새로 건설된 팬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이전했다. 팬엔터테인먼트 드라마부문 사장으로 재직중인 문사우는 금년에 <해품달>에 이어 <적도의 남자>로 잇단 대박을 터뜨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위해 후속 드라마 제작을 준비중이다.



송석형 사우는 지난5월 30일 발족한 경찰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경찰청이 경찰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진단하기위해 발족한 경찰쇄신위원회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송사우는 실효성있고 현실성있는 경찰쇄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국은 사우는 올 봄 학기 부터 충북 음성에 소재한 극동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강의를 맡아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SBS 라디오 PD로 재직하던 김사우는 지난 2월 퇴직했다.



조항현 사우는 6월 4일 OBS 인사에서 방송본부 제작국 기획제작팀장으로 보직을 맡았다. 조 사우는 SBS 개국초기 제작본부 PD로 재직했다.



김 양 사우는 지난 5월 14일 코엔미디어 드라마부문 대표로 취임했다. 코엔미디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음반 및 공연기획을 하는 엔터테인먼트사로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을 위해 김사우를 영입했다.



곽경수 사우는 지난 5월 23일 미디어랩법 제정으로 새롭게 설립된 공영미디어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 곽사우는 전 대통령실 언론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이갑우 사우는 지난 5월 말 (주)한주홀딩스 코리아사장으로 취임했다. 대전방송사장 퇴임후 바로 방송관련 일을 맡게된 이 사우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장준보 사우는 봄 학기부터 인덕대학교 초빙교수로 강의를 맡았다. 장사우는 뉴스택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등 영상 분야 전문가가 재임한 후 지난 1월 정년 퇴임을했다.



변영우 사우는 지난 2월 뉴스택 이사 퇴임후 방송지원기술 회사 콤텍의 전무로 취임했다. 변사우는 또 5월부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와 상명대학원 디지털 이미지 학과 강의를 맡아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멤(?) 탈출

스마트폰 제대로 알고 사용 하십니까?

SBS 사우회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함께 마련한 스마트폰 사용교육이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간 목동 방송회관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16명의 사우들은 KT 한국통신 강사진들

에게 다양한 앱(application)을 이용하는 3G 세대 통신 교육을 받으며 스마트폰 세상의 삼매경에 빠졌다.

국제전화 무료 걸기, 길 찾기, 동영상 송신 등 기초적인 사용법에서 부터 좋은 앱을 다운받아 생활에 활용하기 등을 배운 사우들은 이제 아들이나 손자에게 이용법을 묻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스멤(?)탈출을 기뻐했다.



SBS아트텍은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는
통합역량의 서비스기업입니다.



SeeU
SV01 사유

사유는 SBS아트텍에서 개발한 최초의 한국어 보컬로이드 캐릭터로, 다양한 음역대를 표현하며 명량한 음색으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인 가상의 아이돌 캐릭터입니다. 독특하고 귀여운 귀 모양의 스피커, 다양한 아이템을 장착해 전체적으로 귀엽고 발랄한 모습입니다.